



라브리의 교육 철학

박경옥

1. 아이들은 타고난 인격체이다.

1) 살아 있는 사상을 접하게 해 주어야 한다. 육체에 영양분이 필요하듯, 정신 역시 영양분이 필요하다. 이 영양분을 '살아 있는 사상'이라 부르며 이것은 훌륭한 책에서 얻어진다. 따라서 아이에게는 풍성하고 다양한 교과 과정이 필요하다. 아이에게 있는 호기심, 집중력, 기억력, 이해력 등은 스스로 자신을 교육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어른이 할 일은 아이에게 "정신의 양식"을 먹이는 일이다.

2) "아이의 정신은 아이가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된다. 아이가 받는 교육이 아이의 정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아이의 모든 생각, 호기심, 질문들은 아이가 얼마나 지식에 굶주려 있는가를 보여 준다. 교육받은 아이란, 많은 주제에 대해 바르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식들에 흥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즐겁게 공부하는 아이를 가리킨다.

3) Captain Idea- 공부하는 아이가 누구이며, 왜 공부해야 하며, 어떻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통합된 철학, 즉 세계관이 필요하다. 이 통합된 철학은 서로 다른 이론들을 적당히 절충하려는 요즘의 절충주의에 반대한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 사상은 바로 "아이들은 타고난 인격체이다"라는 사실이다. 아이들은 인간으로 '되어 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인간인 것이다.

4) 잘못된 다른 사상들

- a) 행동주의자---아동은 조종되어야 할 대상이다. 효과적인 아동 관리와 교수 방법으로 아동을 훈련시켜야 한다.
- b) 피아제---아동의 인지 성장에는 단계가 있으므로 각 단계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 아동은 구체적인 것을 인식하는 데서 차차 추상적인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자라간다.
- c) 브루너---아동은 자기실현으로 향하여 가는 것을 인식하는 여행을 한다고 이해,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탐험가로 이해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d) 프로이드---스스로 욕망을 조절할 수 없는, 동물과 같은 존재로 이해

5)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창세기 1:26).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할 수 있다---창조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관계를 맺으며, 이성적이며, 창조적이다. 도덕적이고 자비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무한한 가능성은 어떻게 사용하고 나타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2. 아이들은 선하게만 혹은 악하게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선과 악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태어난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으로서 가진 모든 가능성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심한 손상을 입었다. 하나님의 형상자로서의 아이들은 죄성 또한 지니고 있다. 죄를 짓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로마서 5:12-21).

어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주님이 이 아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곁에서 아이들의 무지와 죄를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그러나 아이를 무시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3. 교육에 있어서 한 쪽에는 권위가 주어져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이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하며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a) ‘자연스럽고’---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데에는 범위와 기준이 필요하다.

b) ‘필요하며’---인간의 죄성과 훈련의 필요성으로 인해

c) ‘기본이 되는’---땅 위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주셨으며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

1) 부모나 교사는 독단적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행동해야 한다. 자신도 할 수 없는 것을 아이에게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편의나 편법을 내세워서도 안 된다.

2) 아이는 어른의 간섭 없이 스스로 선택할 때 자유가 주어진다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배운 것을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3)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른이 아이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4. 그러나 이 원칙은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 아이들의 두려움이나 사랑을 빌미로, 어떤 제안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또는 자연스런 욕구에 맞지 않는 놀이로 인해서 아이들의 인격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1) 행동주의---“네가 00을 하면, 00을 주겠다.” 마치 뇌물을 주는 것처럼.

2) 스티커, 별, 상, 이런 것들은 일을 잘 마친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이의 마음에 호소하고 아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에 호소함으로써 이것은 가능해진다. 아이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능력과 알고자 하는 호기심, 그리고 착하게 행동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능력들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준다. 즉 아이는 자신과 하나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인격체인 것이다.

5. 교육의 네 가지 진리

1) “교육은 환경이다”라는 말은, 아이에게 맞도록 고치고 준비한 소위 ‘아이들 환경’이라는 곳에 아이를 격리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사물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가정환경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를 중요시해야 하며 그가 적합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세계를 소위 ‘아이의 수준’이라고 하는 낮은 수준으로 낮추어 버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된다.

잘못된 환경--아이의 인격 침해, 잘못된 성경 해석에 근거한 도덕적 교훈을 아이에게 강요, 아이의 죄책감을 이용, 경쟁이나 비교, 지나친 시험과 평가,

“위의 것들을 하지 않을 때 아이들이 공부를 하겠는가?”에 대한 답변: 경쟁보다는 협력을, 비교보다는 격려를, 벌이나 사탕(아이가 창조주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보다는 사랑 어린 긍정을 할 때 더욱 학구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알맞은 환경--적당한 공부 시간, 바깥에서 자유롭게 놀게 해 주기, 온실이 아닌 실제 삶을 체험하게 해 주기(인간관계 체험-또래 어린 아이 도와주기, 어른 공경하기--, 동식물 돌보기 등)

2) “교육은 훈련이다”라는 말은, 정신적인 습관이든 신체적인 습관이든, 분명하고 신중하게 아이의 습관을 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훈련은 자동적으로 되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곁에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자신과 또한 하나님과, 나아가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의 내적 관계가 자라나는 면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성격과 행동 모두에 그 결과가 미치게 해야 한다. 훈련은 신중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율법주의나 행동주의에 따라서는 안 된다.

〈습관훈련을 보는 생각의 차이〉

	성경적 기독교 입장	율법주의나 행동주의의 입장
내용	한 인간을 양육한다 관계 책임 순종 효과 상호의존 신뢰 평화	곁에 드러나는 과제 과제, 업무 성취 조종 능력 독립적 불안감, 비교 재촉

3) “교육은 생명이다”라는 말 속에는, 신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지적, 도덕적 생명의 필요도 포함되어 있다. 모든 사상은 두뇌를 통해 받아들여진다. 두뇌는 머리 속으로 들어오는 사상들을 ‘유화(類化) 집단’대로 하나씩 쌓아 놓는 창고가 아니다.

아이의 두뇌는 사상들을 담는 주머니가 아닌, 모든 지식을 갈망하는 영적인 유기체인 것이다. 두

되는 이미 지식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으며, 육체가 음식을 소화 흡수하듯 지식을 적절히 취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아이에게는 광범위한 교과과정이 주어져야 한다. 인간은 안으로부터 자란다. 살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인간을 빚어내려고 하는 외부의 어떤 교육적인 시도도 죽어 있는 장식에 불과하다.

교훈이나 정보, 기억들은 지식이 아니다. 지식은 살아 있는 사상들에서 얻어 지며 살아 있는 책을 통해 전해진다. 어떤 사실을 가르칠 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상들을 함께 가르쳐야 하며(사상의 옷을 입힌다) 이것이 마침내 통합이 되어 '지식'이라는 몸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을 배운 아이들은 발표나 혹은 글로 써서, 혹은 몇몇이 협력해서 무엇을 해내든지 하여 새로운 사상과 지식을 배우는 긴장감 속에서도 책임을 배우게 된다.

4) "교육은 관계의 과학이다."는 말 속에는 아이는 많은 사물들 그리고 사상들과 자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신체 운동, 자연, 손재주, 과학과 예술, 그리고 살아있는 책들로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할 일은 그에게 한 가지라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타고난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관계'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a)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부모를 통해, 성경을 통해, 지성을 통해, 삶에서
- b) 인간과의 관계-역사, 언어, 작문, 음악, 미술,,,
- c) 우주와의 관계-지리, 과학, 목공, 뜨개질, 만들기...

6.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 두 가지는 의지의 길과 이성의 길이다.

1) 의지의 길: 아이들은 다음의 것들을 배워야 한다. 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할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②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될 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돌리는 일(전환)이다. ③ 생각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다른 것을 생각하거나 실제로 하는 것이다. ④ 이렇게 잠시 생각을 돌린 후, 의지력은 새로운 활력을 얻어 제 역할을 바르게 하게 된다.

"I am"---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I ought"--- 나는 그 분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I can"--- 나는 그 분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I will"--- 나는 그 분의 은혜로 할 것이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내가 살아갈 때에도 배울 때에도 은혜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2) 이성의 길: 우리는 또한 아이들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지식에 의지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왜냐하면 이성의 역할은 ① 수학적 진리와 ② 의지에 의해 받아들여진 설정된 관념을 논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이성은 아마도 믿을 만한 안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이성의 길이 언제나 안전하지는 않다. 설정된 그 관념이 옳든지 그르든지 이성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

들을 들어 확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7. 따라서 아이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이해할 만큼 성숙하게 되면, 인격체인 그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책임은 설정된 관념들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일임을 그들은 배워야 한다. 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적합한 원리들과 광범위한 지식을 제공해야 한다. 위의 원칙들은 필요 이하의 수준에서 살도록 조장하는 영성한 사고와 부주의한 행동들로부터 아이들을 지켜 줄 것이다.

8. 우리는 아이들의 지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을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일상생활에서의 관심과 의무, 삶을 즐기는 것 등 모든 면에서 도와주고 계심을 가르쳐야 한다.

1) 신앙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주권(Lordship)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2) 우리는 세상을 정신계와 물질계로 나누는 플라톤적 이원론을 지지 하지 않으며 영과 육이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믿는다.

3) 우리는 죄 짓는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영적이라고 믿는다.